

SNS 댓글을 통해본 독자들 소리

114회에 걸쳐 연재된 증언록에 대해 매회 독자들은 읽은 소감으로 3천여 건에 달하는 댓글을 올렸다. 제3자를 비난한 글이나 사실과 다르고 일방적 비난성 글은 제외하고 증언록 취지에 걸맞는 독자들의 대표적 댓글을 일부 소개한다.

‘대한민국 역사는 5.16부터 시작’

빛나는 대한민국 역사는 5.16부터 시작했다. cc3400 (3.23)

‘박정희와 함께 우리 민족혼을 일깨운 용감한 사나이이다’

(5.16혁명과 관련) 김종필 씨는 우리 5000만 국민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용감한 사나이이다. 5.16은 구국혁명이다. 5000년 동안 땅속 깊숙이 묻혀 있던 우리 민족혼을 일깨운 박정희 영웅을 도운 유일한 참모다. . . .

516park (3.28)

‘용기와 지략을 겸한 대단한 인물’

자서전이라 서졌지만 (JP는) 대단한 인물이 틀림없다. 용기와 지략을 겸한 자라고 평가할 만하다. joinme1225(4.6)

‘서울의 봄에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JP의 정신을 닮은 정치인이 나왔으면 한다. 80년대 서울의 봄에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을 한 적은 있지만, 여하튼 대단한 분이다. ssungkiwon (4.8)

‘대한민국을 오늘의 성장궤도에’

역시 박정희와 김종필은 호흡이 잘 맞았기에 혁명도 성공했고, 대한민국을 오늘의 성장궤도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명장 밑에 김종필 같은 명석한 기획자가 있었기에 박정희도 결국 성공한 셈으로 보입니다. 김종필의 아이디어와 기획을 역시 수용할 그릇이 있었기에 윈윈했고 모두의 공이 되는 것입니다. isj4412(4.17)

‘연설문을 중학교 교과서에 등재하라’

JP의 (2005년 도쿄)연설문을 중학교 교과서에 등재하라. 일방적 시각의 전교조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던 말이다. songison(4.29)

‘진정한 혁명가! 풍운아! JP와 같은 혁명을 꿈꾸라!’

(한일회담에서) 정말 대단한 JP! 서른여섯 젊은 나이에 국가 개조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 사나이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진정한 혁명가! 풍운아! 남아이십미평국(男兒二十未平國)이면 후세수칭대장부(後世誰稱大丈夫)리오. 젊은 이들과, JP와 같은 혁명을 꿈꾸라!

kklee2002(4.29)

‘개방적 발전적 미래지향적인 JP 김종필’

마음이 천심이시고 아름다우며, 의식과 사고가 개혁과 개방적 발전적 미래지향적인 JP 김종필 전 총리께서는 각종 모함과 이간질로 비록 대통령은 못 하셨습니다, JP 김종필 전 총리의 인생 역정과 업적은 우리 역사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 지도자보다도 더욱 빛날 것이며 영원할 것입니다. JP 김종필 전 총리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slskylee(6.10)

‘누구보다도 가장 솔직한 회고’

난 이분(JP)의 회고록을 보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다. 앞으로 풀어놓을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 모든 의문이 풀리는 꾸밈없는, 누구보다도 가장 솔직한 회고라는 생각이다. swb077(7.1)

‘김종필 없는 박정희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었다’

(박정희와 키신저) 김종필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도 없었다. 5.16 먼저 하자고 한 것도 JP다. (박정희에게)대통령 하라고 한 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달래서 하게 만든 것도 JP. 박정희 정적을 제거해준 것도 JP. 김종필 없는 박정희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었다. 박정희가 안심하고 정치할 수 있도록 받쳐준 것도 김종필. 둘을 동급으로 보아야 한다. 김종필 없는 박정희는 상상도 할 수 없다.

slugger70 (7.15)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

저는 1971년생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과 같은 시대를 잠시 살았다는 것이 저에게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딸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60-70년대의 경제발전이 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hahahahoho(7.31)

‘우리에게도 이런 위대한 영웅이 있어 자랑스럽다’

5.16은 조선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역사적인 혁명일이 틀림없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청와대까지 북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게 이끌었다. 북 뿐만 아니라 동남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하지 못했다. 중국 등소평의 롤 모델이었다.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 단점을 보지 마라. 장점을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5천만의 책임을 진 지도자였고, 지도자로서 5천만을 잘 이끌었다. 국민을 잘살게 해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성공했다. 나머지는 후세들이 해야 할 문제이다.

완벽한 국가,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 공이 얼마큼 큰가를 보고, 그 공이 국민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지도자의 평가가 따른다. 3년만 더 집권했더라면 핵개발 완료로 작금의 북의 핵에 인질이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쉽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고, 본인은 소임을 완벽히 완수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대한 영웅이 있어 자랑스럽다. 세계 어느 영웅과 비교해도 된다. 자랑스러워 하라. Kjazini1(8.26)

‘JP는 그야말로 대인(大人)이었다’

JP는 무서운 사람. 5.16 초기 방미했을 때 당시 법무장관 Edward(Robert) Kennedy가 자기 책상에 발을 올려놓은 채 손님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JP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주미대사 정일권이 기절초풍을 하면서 JP를 말렸었고, 이를 본 Edward(Robert) Kennedy는 자신의 발을 책상에서 슬그머니 내렸다는 일화 속에 담겼던 JP는 그야말로 대인(大人)이었다. f091691(9.9)

‘우유부단하고 배일에 가려진 듯한 부분도 없지 않아’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분명 김종필 씨는 큰일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의 행적 중 일부는 우유부단하고 배일에 가려진 듯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그는 지략을 겸비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충청도 특유의 완충적 성격은 중대한 일을 조용하게 계획하고 연결시켜 엮어내기도 하고, 과감한 결단력으로 실행을 통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려한 점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공과는 있기 마련이고 컬럼버스의 달걀은 많은 이들 사이에 회자되지만, 5.16사변이 없었다면 yitown(9.23)

‘최대 실수는 환자들이 집권하게 도움을 준 것’

김 총재님의 최대 실수는 김영삼과 김대중 같은 대통령병 수준 이하 환자들이 집권하게 도움을 준 겁니다. 현 대한민국이 안타깝습니다. hyrlee(10.7)

‘깊은 안목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JP의 회고록을 읽으면서 그가 깊은 안목을 가진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박정희시대에는 2인자로서 불운한 시대를 살았고, 그 후에는 전두환의 박해와 국민들의 외면으로 능력과 비전에 비해 조력자의 역할로 만족해야 한 것이 안타깝다. 그가 자주 인용하는 칼 포퍼의 말 “20대에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이 없고, 30대에 사회주의자이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좌우 극단주의자들이 잘 새겨들어야 하는 말일 것이다. 특히 이웃 중국은 등소평 같은 걸출한 지도자로 인해 몇 년 만에 미국과 겨루는 G2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맨날 여야가 용공 시비와 수구 시비로 사사건건 투닥거리며 시간 낭비하는 모습이 역겨우면서 JP 같은 높은 안목을 가진 정치인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상황이 아쉽다. qinq (10.27)

‘권력에 빌붙은 사람이 아니라 현대사의 연출가’

JP에 대한 나의 평가는 연재중인 중앙일보 증언록을 읽으면서 180도 달라졌다. 필리핀보다 못살던 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조율사가 바로 JP였고 그가 있었던 것이, 한국이 유신독재로부터 YS, DJ까지 이어지게 된 숨은 주역이며 한국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런 연출자였다. 본인의 소신과 달리 박

대통령의 유신합류가 치명적이나 이를 상쇄하는 국가관과 애국심이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scko933글에 동감하며 JP의 식견과 인문학적 소양, 애국심, 실사구시 정신 등은 경이롭고 존경스럽다. 권력에 빌붙은 사람이 아니라 역사와 권력 흐름을 유연하게 이끈 현대사의 연출가로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JP와 같이 변명하지 않고 애국심과 국가관,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 정치인이 아쉽다. 소이부답을 읽기 전에는 JP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도 세속화되고 권력에 빌붙어 살아남는 기회주의자로 보여졌다. 그러나 JP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현대사에서 얼마나 다행인가? hopevisi(11.27)

‘흑묘백묘나 5.16이나 국가발전을 이끈 건 상통’

JP의 중지도자의 평 대체로 정확하다. 등소평의 전임자 마오 부정 않고 고르비처럼 혼란 만들지 않고 천안문 사태 무력 피의 진압 했어도 당시로서는 어쩔수 없었지. 등은 체제 무너트리 지 않고 수정 공산주의하며 중국 개혁 개방해 지금 중국 번영의 토대를 다졌다. 박대통령 독재와 반 민주주의 했어도 당시로서는 민주주의의가 우리 형편엔 맞지 않고 북의 위협과 국민들의 미숙함에 혼란과 국가분열로 이어졌을 거다. 흑묘백묘나 5.16이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신체제에 어긋나도 국가발전을 이끈 건 상통하는 면이 있지. scko933(11.27)

‘대학생으로서 당신의 계획에 대해 격렬한 반대시위도 했었지만’

한 세대를 역사의 주역으로 수고하며 진정한 국가의 장래와 국익의 실현방법에 탁월한 지혜와 철학을 겸비한 숨은 공로자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0년대 산업화의 여러 project를 구상, 실현하고자 할 때 대학생으로서 당신의 계획에 대해 격렬한 반대시위도 했었지요.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20대의 철부지 의협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되었고, 당신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도 알게 되었지요. 부디 건강하시고 더욱 발전해가는 조국의 번영에서 보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Moo7 (12.2)

‘3김 서바이블 게임의 최종 승리자’

종피리는 잘한 게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충청 캐스팅보트를 순리에 맞게 행사해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했다는 것, 그리고

3김 서바이블 게임의 최종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路(12.2)

‘그래서 당신을 사상가요 철학자로 보는 것이다’

(최종회를 읽고)요즘 같은 앗싸리 정치판에 JP 증언으로 많은 깨우침을 주는구나 했는데 끝을 맺는다니 아쉽구나. 현대사에 꼭 필요할 때 나타나 국가미래를 위해 큰 . . . 경제와 민주주의, 복지라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JP, 수고하셨습니다. 늘 얘기하던 정치는 예술 같이 해야 한다고 . . . 욕을 먹더라도 국가미래라는 담대함을 보고 선택한 당신의 길은 영원히 훌륭한 기록될 것이다.

오로지 대권에 목을 맨 대통령들과 당신은 달랐지요. ‘그래 잔나비들아, 설치고 소리내라. 나는 나의 길을 갈뿐이다. 허허 . . .’ 수많은 역경과 . . . 파렴치한 자들한테 모욕 당하고 없는 죄 씌워 망신주고, 그래도 당신은 허허실실 . . . 그래서 당신을 사상가요 철학자로 보는 것이다. 남은 시간, 후배 정치인들한테 좋은 말씀해 주시고 국민들한테 간간이 안부나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kunyang7(12.2)

‘DJ연대는 과감한 결정이었다’

어릴 때 “내각책임제 하자.”라는 김종필 총재의 주장이 나올 때마다 뭘 소린가 했었는데, 나중에 정치학을 배우고 나서 우리나라의 강한 정당규율 문화를 봤을 때, 대통령중심+의회제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민의를 더 잘 대변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튼 이 아저씨의 주장이 좀 더 영향력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특히 DJ연대 사건에서 DJ에게만 집중됐었는데 JP의 얘기를 들으니 JP 자신에게도 정말 과감한 결정이었고, 우리나라에 훨씬 좋은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김영철(12.2)

‘가슴 서늘한 눈물로 때로는 통쾌함으로 이 글을 읽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역사의 길잡이요 안내자로서의 귀한 글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통찰력과 자심감으로 역사의 바른 길을 걸어왔던 위대한 선배요 정치가가 얼마나 있었던가?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주변을 거처간 수 많은 위인들 인사들, 나름대로 열심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우들 이처럼 눈이 번쩍떠게한 회고록이나 회고담이 별로 없는 이 시대



에 정말로 고마운 사람임을 때로는 가슴 서늘한 눈물로 때로는 통쾌함으로 이 글을 읽었다. 쪼끔만 잘 나간다면 잘못 된 면만 추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반대만 하고, 앞날을 고심하지 않고 나서기만 좋아하는 것만 같은 척박한 이 세대에, 이분의 회고록이 귀한 촛불로써 남아지기를 원하며 조속히 단편집으로 출간되어 많은 이들의 귀한 역사의 울림으로 남아지길 바란다.

hanws54 (12.4)

‘정치학자 중 이분을 연구할 사람은 없을까?’

jp는 학문적 연구 대상이다. 정치학자 중 이분을 연구할 사람은 없을까?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랜동안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 jp말고 누가 있는가?

humanson (12.4)

‘유신독재 다 찬성한 주제에’

팩도 당당하다. 3선개헌, 유신독재 다 찬성한 주제에. 치매 왔나? 이광식(12.04)

‘돌아가실 때 장엄한 노을이 온통 하늘에’

돌아가실 때 장엄한 노을... 노을이 지면... 님은 엄청난 영웅인데... 국가와 민족의 큰 별입니다. 하늘이 기상변화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 장면을 화폭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잘 찍는 작가가 예술작품으로 남겨도 좋겠고요.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실 때 잠시 노을 진 적이 있지만... 님이 돌아가실 때 장엄한 노을이 온통 하늘을 물들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bgw4dc(12.2)

‘2인자 노릇밖에 못했지만 평가는 재조명되어야 한다’

JP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꼭 있어야 할 인물이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만한 위대한 인물이었다 박정희의 그늘에 묻혀 종신토록 2인자 노릇밖에 못했지만 그의 해박한 지식과 선견지명은 한국의 역사를 바꿀만한 인물이었고 그에 대한 평가는 재조명되어야 한다.

유상모 (12.4)

‘사실을 이야기한 이분의 기록을 담담히 받아드리자’

공과를 떠나 근대를 이끌어온 분의 기록이다. 역설적으로 박정희 김종필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시대에 집권했으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라에 운이 있었던거 아닐까. 민주주의가 빵을 먹고 자라서 이제는 너무 배가 불러 온갖 불평불만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예민한 감성의 국민성이 만족이란 걸 모르고 그럴듯한 거짓이 진실이 된다. 인기 TV드라마 재미로 왜곡된 내용이 역사가 되는 황당한 나라 되었다. 사실을 이야기한 이분의 기록을 담담히 받아드리자.

rmsdnjss (12.5)

‘한국 근현대사의 참고서로써도 좋을 정도로 그 진실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기사로 유익했다. 한회도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김종필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찾아가 물러나라고 말한 그 담대함이 결국 역사를 바꾼 배짱이 아니었나 싶다. 한국 근현대사의 참고서로써도 좋을 정도로 그 진실을 알 수 있었다. 읽으면서도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 그 당시야 자신들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겠지만 황태성씨를 간첩이든 밀사든 북으로 추방했으면 지금보다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자신들의 사상을 검증받기 위해 생명을 그것도 형님의 친구를 죽였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한일 협정에서 받았던 보상금 안에 위안부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 당시 보상금 안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위안부 피해 보상은 일본정부의 몫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한시대를 관통한 거인의 삶을 볼수 있는 좋은 취재 였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신 기자분들께도 찬사를 보낸다. Woo Don Hee (12.5)

‘그 많은 비사를 간직한 채 그냥 묻고 가려했는가?’

종필이는 남자 중의 남자다. 그 많은 비사를 간직한 채 그냥 묻고 가려했다 운명은 모르는 것인데 89세까지 회고록을 읽었던 걸 보면, 주위의 요청으로 이제야 구술한 걸 보면.

opop99 (12.5)